# 국민 절반 "5·18은 민주화 관련 가장 큰 역사적 사건"

■ 5·18기념재단, 전국 남녀 600명 대상 인식조사

## 57.4%가 "민주주의·인권신장 기여했다"

## "5·18비방·왜곡 맞서 교육·언론홍보 절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4명은 5·18 민중항쟁이 민주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5·18 기념재단이 발표한 '2015 5·18 인식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사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54.8%는 5·18 민중항쟁이라고 답했다.

이어 ▲4·19 혁명(25.4%) ▲3·15 의거(5.6%) ▲4·3사건(3.1%) ▲6·10 항쟁(2.5%) ▲부마항쟁(2.4%) ▲2.28 민주운동(1.7%)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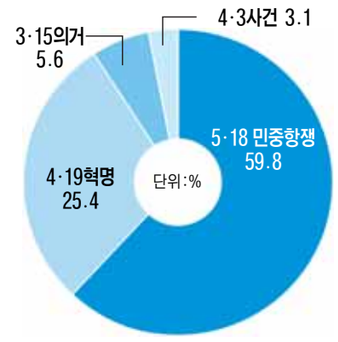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8.6명은 5·18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18 민중항쟁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6%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5.5%보다 0.5%P 오른 수치다.

특히 5·18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50%는 신문·TV·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5·18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교과서·홍보책자·잡지 등 인쇄물(17.8%) ▲주변사람(10.2%) ▲인터넷(7.8%) ▲영화·홍보영상 등 영상물(5.6%) ▲직접경험(3.8%) ▲전시회·재단사업 참여(1.3%)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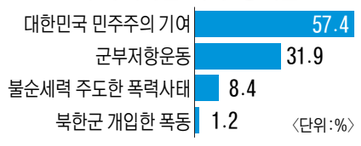
5·18을 알게 된 경로 중 재단사업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온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해 5·18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개발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18이 가져다준 의미(성격)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57.4%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군부저항운동(31.9%)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8.4%)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1.2%) 등의 순이다.

■ 민주화 운동 중 관심이 높은 사건은?




■ 5·18이 가져다준 의미·성격?




응답자 중 9.6%는 5·18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50.4%는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11.5%에 불과했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4.6%P 증가했다.

'인터넷상에서 5·18 비방·왜곡이 심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7.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63.5%보다 5.6% 감소한 수치다. 5·18 비방 및 왜곡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초·중·고교 교육 강화'와 '언론매체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5·18 기념재단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12일~13일)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6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0%P.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언론이 5·18역사왜곡 바로잡아야"

### 광주·전남기자협회 심포지엄

5·18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선 언론이 정확한 팩트 위주의 보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16일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에서 '5·18 진실왜곡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선 호남대 교수는 "5·18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5·18 남침설, 북파공작원 파견설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언론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종철 박사도 "80년 당시 계엄사가 보내준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했던 언론이 지금도 일부 보수주의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언론이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렬 광주·전남민언련 이사는 "5·18 35주년을 계기로 우리 언론이 다시 한 번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구길용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 언론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남로 가득 메운 5·18전야제 인파

제 35주년 5·18 민중항쟁 전야제가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유족과 시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주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 | | | |
|---|---|---|---|
| 해뜸 | 05:27 | 달뜸 | 05:33 |
| 해짐 | 19:31 | 달짐 | 19:34 |

**5·18 영령 추모하는 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우량 5~10㎜.

◇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 주 | 가끔흐리고비 | 16/22 | 보 성 | 가끔흐리고비 | 12/18 |
| 목 포 | 가끔흐리고비 | 14/20 | 순 천 | 가끔흐리고비 | 14/17 |
| 여 수 | 가끔흐리고비 | 15/17 | 영 광 | 가끔흐리고비 | 15/21 |
| 나 주 | 가끔흐리고비 | 14/21 | 진 도 | 가끔흐리고비 | 14/20 |
| 완 도 | 가끔흐리고비 | 14/18 | 전 주 | 흐림 | 16/23 |
| 구 례 | 흐림 | 12/18 | 군 산 | 흐림 | 14/21 |
| 강 진 | 가끔흐리고비 | 14/18 | 남 원 | 흐림 | 13/22 |
| 해 남 | 가끔흐리고비 | 14/18 | 흑산도 | 가끔흐리고비 | 13/18 |
| 장 성 | 가끔흐리고비 | 13/20 |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남동~남 | 0.5 | 북~북동 | 0.5~1.0 |
| | 먼바다 | 남동~남 | 0.5~1.5 | 북~북동 | 0.5~1.5 |
| 남해서부 | 앞바다 | 남동~남 | 0.5~1.0 | 북동~동 | 0.5~2.0 |
| | 먼바다(동) | 동~남동 | 1.0~1.5 | 북동~동 | 1.0~2.0 |
| | 먼바다(서) | 남동~남 | 0.5~1.5 | 북동~동 | 1.5~2.5 |

◇ 생활지수

| | |
|---|---|
| 수면 | 80 |
| 운동 | 50 |
| 빨래 | 30 |

◇ 물때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2:06 | 07:22 |
| | 14:14 | 19:31 |
| 여수 | 09:05 | 02:53 |
| | 21:36 | 15:04 |

◇ 주간 날씨

| 19(화) | 20(수) | 21(목) | 22(금) | 23(토) | 24(일) | 25(월) |
|---|---|---|---|---|---|---|
| 14/30 | 13/26 | 12/27 | 14/27 | 15/28 | 15/29 | 16/29 |

## 여수경찰, 아내와 외도 의심 남성 흉기 살해 60대 구속

여수경찰은 17일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0분께 여수시 신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박모(61)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내(54)와의 외도를 의심하고 "오해를 풀자"며 박씨 부부를 집으로 불러 대화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동네 선배이자 어선 선원(사무장)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이씨는 "의처증 치료를 받으라"는 박씨의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 전국 교도소 수형자 286명 올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는 전국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5년 제1회 검정고시에 교정기관 수형자 402명이 응시해 286명이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형자 합격률은 71.1%로 서울시 전체 평균 합격률(67%)보다 높았다. 특히 김천소년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에서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올해 검정고시가 선택과목 변경 등으로 전체 합격률이 60%대로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수형자들이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38개 교정기관에서는 학업에 뜻이 있는 수형자들을 위해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학원강사와 교도관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합격인원은 6천515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 구분 | 가입금액 | 회원구성 | 이용기간 | 연 이용횟수 | 월 이용횟수 | 공통사항 |
|---|---|---|---|---|---|---|
| S-싱글 | 350만원 | 기명 1인 | 3년 | 총 40회 (년 15회) |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 그린피(세금포함)+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
| S-트윈 | 670만원 | 무기명 2인 | 3년 | 총 80회 (년 30회) |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 |
| S-VIP | 1,320만원 | 무기명 4인 | 3년 | 총 160회 (년 60회) |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 사 서 울 1566-9799
지 사 부 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 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 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 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 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MALL GBM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MALLS HTC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펠리스점) http://tp.kal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